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최근 3개월간 -10%대 성장률 유지
- 7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89.2로 전년동월대비 11.0%로 감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모두 증가, 전국대비 32.4%의 구성비를 보임
-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7.5%, 대형마트 2.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2%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의복, 음식료, 화장품, 가전 등의 판매로 7.5% 증가,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 및 음식료품, 운동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2.5% 증가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로 전도시 평균보다 낮게 상승
-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로 전월대비 0.3%, 전도시 평균(0.4%)보다 낮게 상승, 세부항목별로는 식료품, 주거, 공공서비스 부문 등에서 상승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0.3%, 1.7%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월이후 소폭하락 최근 60.1% 기록
- 8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1%p 하락한 60.1%로 나타남
- 8월 서울의 청년취업자 7.0%로 큰 폭 감소, 전국대비 청년취업 문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8월 서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41천명(-2.9%) 감소한 4,788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92천명(-3.2%), 여자는 50천명(-2.4%)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3.1%) 3.9%p 차이를 보임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 4.5%, 전국대비 0.8%p 높아
- 8월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남자는 5.2%, 여자는 3.4%
- 서울의 고용률 57.5%로 전국의 고용률(58.8%)보다 1.3%p 낮은 수준

부동산

- 7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7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7,40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7% 감소
- 공공부문은 신규아파트 공사 및 한강공원 공사 등 수주 감소로 82.8%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전년대비 민간 학교 및 연구소 등의 수주 감소로 4.1% 감소
-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축소
- 서울의 강남 아파트(0.6%)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재건축규제 시그널, 추가금융규제 우려감으로 전월(1.1%)에 비해 상승폭 축소
- 강북 아파트(0.4%)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감
- 8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강세 지속
- 강북지역(0.7%)에서는 가을 이사철 물량 부족으로 전역의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됨. 광진구, 중구, 강북구, 종로구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임

금융

- 7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7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5조 9,10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61% 증가
- 7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74개로 전년동월대비 10.0%(180개) 증가
- 7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5개로 전년동월대비 43.8%(35개) 감소
- 8월 서울시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서울의 수출은 27.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9.4%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반도체, 편직물, 자동차부품 등의 순
- 8월 서울의 수입은 64.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8.9% 감소.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등의 순

| 생 · 산 |

7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7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9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0.0% 증가하여 7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장비, 1차 금속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0.7% 증가하여 9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예산조기집행 영향 축소 등으로 전월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0.8%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

■ 7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11.0%로 감소세 지속

- 7월 중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89.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 전월대비 6.7% 증가
-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기타제품 등에서 감소
- 전국대비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지난달에 비해 다소 회복되는 모습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경공업부문 마이너스 성장세 심화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2.7%로 지난달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3%로 6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경공업 부문 마이너스 성장세 심화, 전월대비 경공업 부문 15.2%의 상승세를 보임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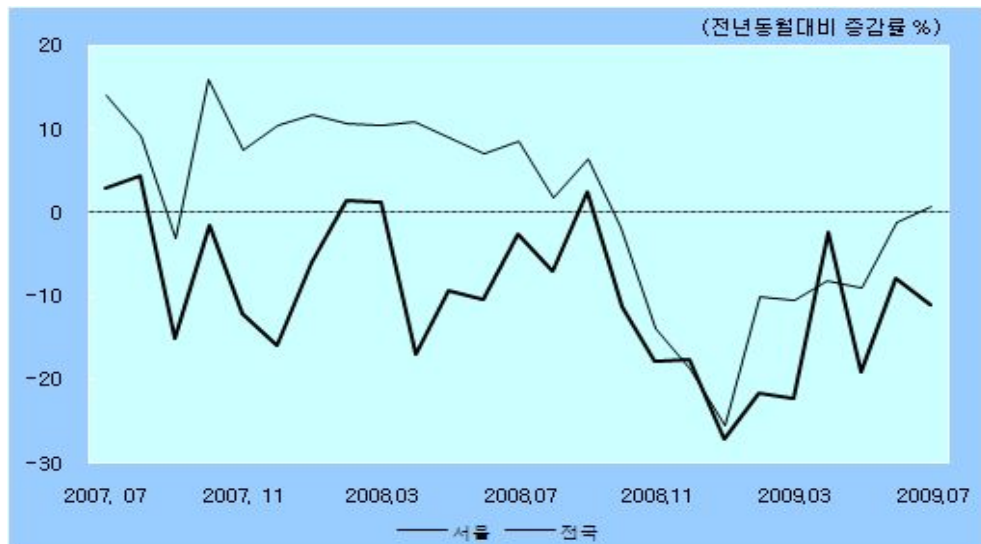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8.6 (-1.3)	-10.5 (4.9)	-8.2 (2.6)	-9.0 (1.4)	-1.2 (5.7)	0.7 (2.0)
	서울 (제조업)	-2.5 (10.5)	-22.2 (10.2)	-2.3 (12.5)	-19.0 (-17.4)	-7.8 (4.0)	-11.0 (6.7)
	중공업	-19.3 (-3.1)	-41.0 (13.4)	9.8 (46.5)	-24.0 (-23.8)	-8.7 (10.0)	-12.7 (-7.3)
	경공업	9.2 (19.1)	-9.8 (8.8)	-9.0 (-2.2)	-15.9 (-13.3)	-7.3 (0.6)	-10.3 (15.2)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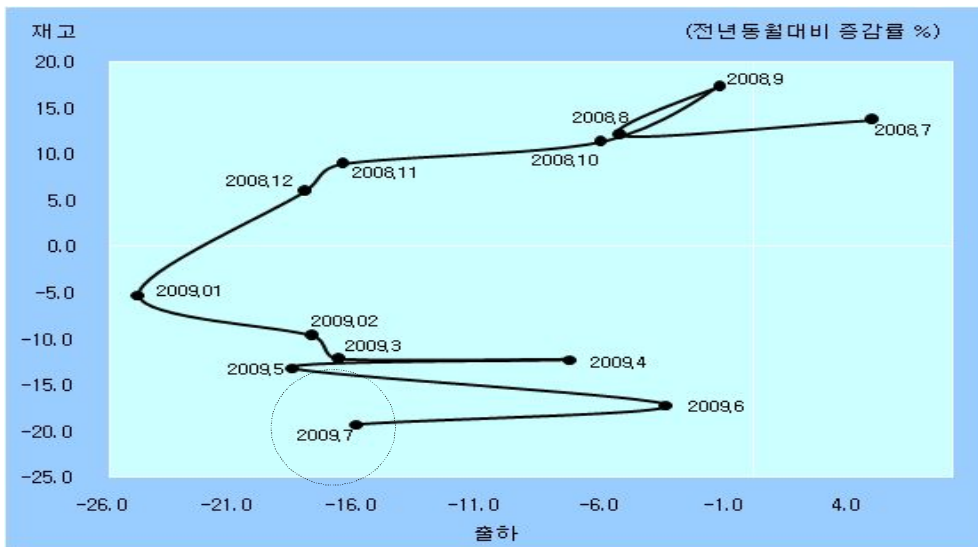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7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의 7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37.4로 전년동월대비 19.3% 감소
 -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1차금속 등에서 감소, 전월대비 3.7% 감소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88.7(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5.6% 감소,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출하 및 재고 각각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중공업 부문 증가, 경공업 부문 감소

- 7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2.7%로 전월대비 0.2%p 증가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48.5%로 전월대비 5.6%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32.4%p 증가한 134.6%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7.9%p 감소한 149.4%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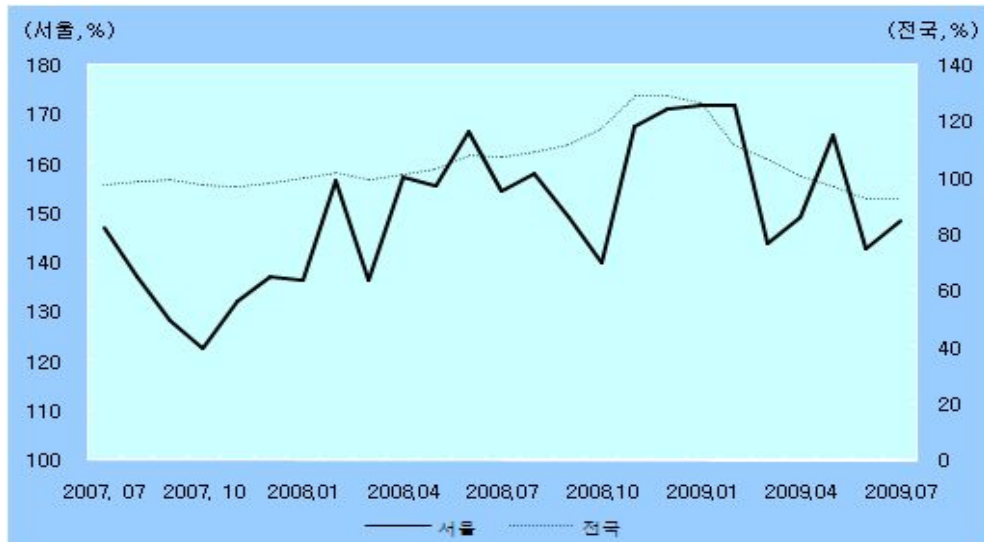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재고율	전국	107.3	106.8	100.7	97.2	92.5	92.7	0.2
	서울	154.7	143.8	149.1	165.9	142.9	148.5	5.6
	중공업	167.0	126.5	145.0	157.7	102.2	134.6	32.4
	경공업	147.3	147.0	147.8	167.4	167.3	149.4	-17.9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7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월대비 3.0% 증가

- 전국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월대비 3.0% 증가함
- 백화점의 경우 전월대비 3.7%, 대형마트의 경우 0.4% 각각 감소
- 유형별 전월대비 증감은 내구재 0.7%, 준내구재 3.2% 각각 감소, 비내구재 4.7% 증가로 나타남, 업태별로는 전문상품소매점 1.7%, 백화점 3.7%, 대형마트 0.4% 각각 감소하였으며, 무점포판매는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모두 증가, 전국대비 32.4%의 구성비를 보임

-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3,37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32.4%의 구성비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7.5%, 대형마트 2.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2% 증가, 전월대비 백화점 4.4%, 대형마트 2.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 감소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가전 등의 판매호조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채수 증가(전년 62개 → 금년 66개)와 음식료품, 운동·오락용품, 화장품, 서적문구 등의 판매호조로 2.5%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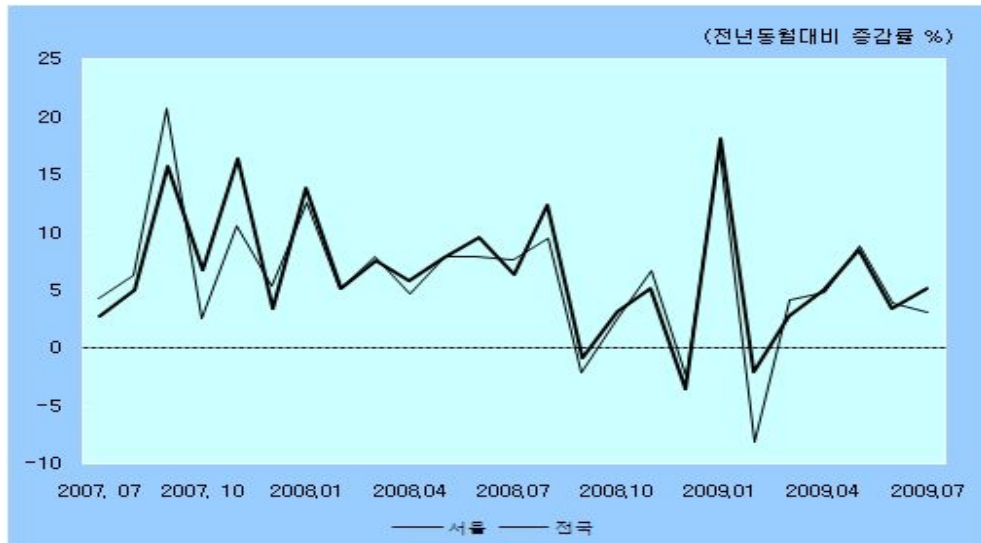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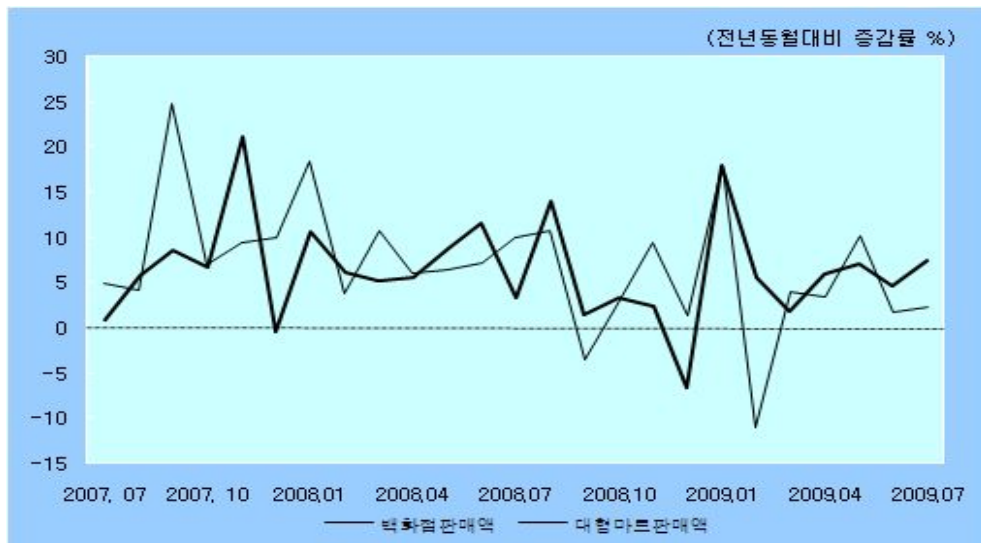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판매액	전국	4006.9 (7.6)	4296.4 (4.1)	4158.0 (4.8)	4543.5 (8.8)	4060.4 (3.8)	4128.2 (3.0)
	서울	1271.8 (6.4)	1404.2 (2.8)	1422.6 (5.0)	1510.7 (8.5)	1356.9 (3.4)	1337.4 (5.2)
	백화점	680.9 (3.4)	791.9 (1.8)	841.0 (6.0)	855.4 (7.1)	765.758 (4.7)	731.7 (7.5)
	대형마트 (할인점)	590.9 (10.1)	612.2 (4.1)	581.5 (3.6)	655.3 (10.3)	591.1 (1.8)	605.6 (2.5)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8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안정세 유지

■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플러스 성장세 지속

-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로 전월대비 0.4%로 상승하여 7월에 이어 연속 상승, 전년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하여 7월(1.6%)에 비해 상승률 증가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9% 상승
-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전월대비 0.2%~0.4% 상승하였음

■ 8월 서울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3%로 전도시 평균보다 낮게 상승

-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상승
- 시도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7개 시도는 전월대비 전도시 평균(0.4%)과 같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을 포함한 9개 시도는 전월대비 전도시 평균보다 낮게 상승
- 상품은 전월대비 0.4%(전국: 0.5%), 전년동월대비 3.2%(전국: 2.0%) 각각 상승, 부문별로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1.4%,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2%(전국: 0.2%), 전년동월대비 2.3%(전국: 2.2%) 각각 상승, 부문별로 집세는 전월대비 0.2% 상승, 공공서비스부문은 0.0% 보합, 개인서비스 부문은 0.2% 상승

■ 서울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0.3%, 1.7% 상승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국: 0.5%), 전년동월대비 2.0% (전국: 1.3%)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7% (전국: 1.9%), 전년동월대비 5.7% (전국: 6.2%)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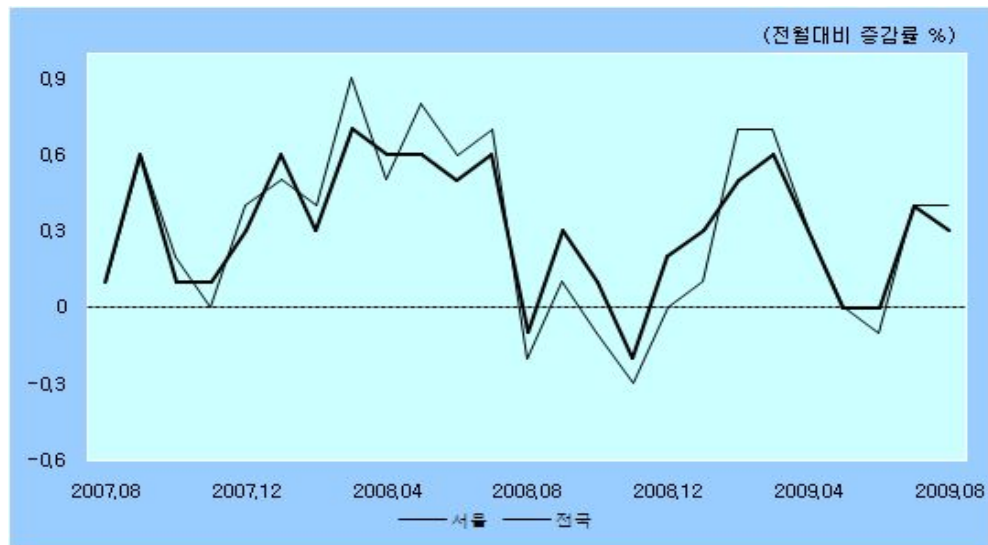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비	전국		-0.2 (5.6)	0.7 (3.9)	0.3 (3.6)	0.0 (2.7)	-0.1 (2.0)	0.4 (1.6)	0.4 (2.2)
	서울		-0.1 (4.8)	0.6 (3.9)	0.3 (3.7)	0.0 (3.0)	0.0 (2.6)	0.4 (2.3)	0.3 (2.6)
	상품 성질별	상품	-0.5 (7.4)	1.1 (6.5)	0.4 (6.1)	-0.1 (4.4)	-0.4 (3.0)	0.5 (2.2)	0.4 (3.2)
		서비스	0.2 (3.6)	0.4 (2.6)	0.2 (2.5)	0.0 (2.3)	0.2 (2.2)	0.4 (2.3)	0.2 (2.3)
	생활물가		-0.3 (5.5)	0.9 (3.2)	0.7 (3.3)	-0.2 (2.4)	-0.3 (1.5)	0.4 (1.3)	0.3 (2.0)
	신선식품		4.7 (-3.3)	3.2 (10.2)	3.6 (15.4)	-1.8 (14.4)	-8.5 (10.7)	1.7 (8.8)	1.7 (5.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8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소폭 하락

■ 8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4%p로 2개월 연속 하락세

- 전국 7월 15세 이상인구는 40,16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0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5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4천명(0.6%)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393천명으로 104명(0.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132천명으로 40천명(0.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8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1%로 전국대비 1.0%p 낮음

- 8월 15세이상인구는 8,33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0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8천명(-2.5%)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2.1%p 하락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3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6천명(6.3%)이 증가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전국	0.7 (-1.2)	-0.2 (1.7)	-0.2 (1.6)	-0.1 (0.8)	0.8 (1.1)	0.3 (-0.7)	0.6 (-0.9)
	서울	-0.1 (-0.5)	-1.5 (1.6)	-1.2 (0.3)	-1.3 (0.2)	-0.7 (0.6)	-1.2 (-0.3)	-2.5 (-1.9)
	남자	-0.4 (-0.5)	-0.8 (1.3)	-0.9 (0.1)	-0.9 (0.7)	0.0 (0.5)	-1.0 (-0.4)	-2.3 (-1.8)
	여자	-0.6 (0.3)	2.2 (-2.4)	0.6 (-1.6)	-0.6 (-1.8)	0.7 (-1.6)	-0.2 (-1.4)	-2.0 (-2.8)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61.5	60.2	61.2	61.6	62.2	61.7	61.1
	서울	62.2	61.1	61.2	61.3	61.6	61.3	60.1
	남자	74.1	72.7	72.7	73.2	73.5	73.1	71.8
	여자	50.9	50.1	50.4	50.0	50.3	50.2	49.1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업·자 |

8월 서울의 취업자수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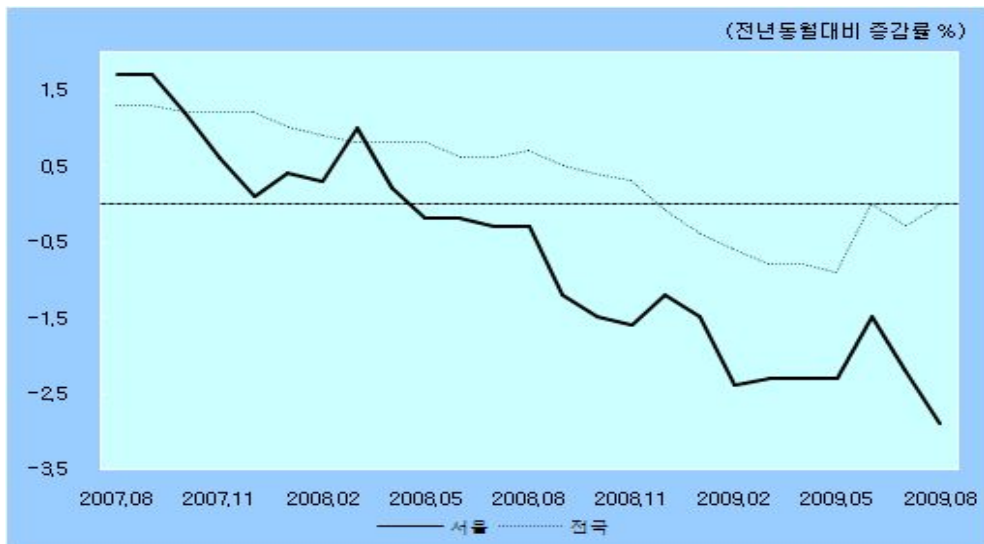
- 전국의 8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3천명 증가, 청년 취업자는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8월 취업자는 23,6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0%)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7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0.1%) 증가하였고, 여자는 9,832천명으로 4천명(0.0%) 감소하여, 남성보다 여성 취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1%로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음
- 8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 7.0%로 큰 폭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8월 취업자는 4,7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1천명(-2.9%)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55천명, 여자는 2,0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92천명(-3.2%), 여자는 50천명(-2.4%)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3천명(71.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87천명(4.9%)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80천명(-18.9%), 제조업 82천명(-14.3%), 도소매음식숙박업 61천명(-4.3%), 전가운수통신금융업 9천명(-1.2%)은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0%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3.1%) 3.9%p의 차이를 보여 전국보다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다소 하락,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7%로 지난달에 비해 0.8%p 상승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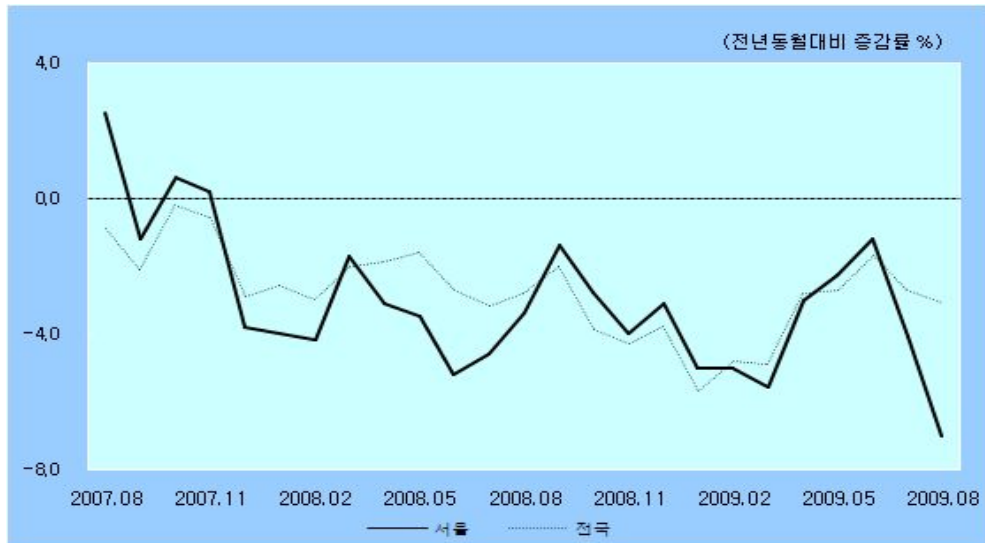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취업자	전국	0.7 (-1.2)	-0.8 (1.6)	-0.8 (1.8)	-0.9 (0.8)	0.0 (1.0)	-0.3 (-0.6)	0.0 (-0.9)	
	서울	-0.3 (-0.9)	-2.3 (1.6)	-2.3 (0.3)	-2.3 (0.4)	-1.5 (0.7)	-2.2 (-0.6)	-2.9 (-1.5)	
	남자	-0.1 (-0.7)	-2.6 (1.1)	-2.4 (0.4)	-2.2 (1.3)	-1.4 (0.4)	-2.5 (-0.7)	-3.2 (-1.4)	
	여자	-0.7 (-1.1)	-1.9 (2.3)	-2.2 (0.1)	-2.5 (-0.7)	-1.6 (1.2)	-1.8 (-0.3)	-2.4 (-1.7)	
청년층 취업자	전국	-2.8 (-2.6)	-4.9 (-1.3)	-2.8 (3.0)	-2.7 (1.6)	-1.7 (-0.2)	-2.7 (1.4)	-3.1 (-3.1)	
	서울	-3.4 (-1.1)	-5.6 (-0.2)	-3.0 (3.8)	-2.3 (2.1)	-1.2 (-0.9)	-4.1 (-0.7)	-7.0 (-4.0)	
고령층 취업자	전국	1.5 (-0.8)	2.1 (7.5)	8.6 (4.6)	1.0 (2.0)	4.4 (3.2)	3.7 (-1.6)	4.7 (0.1)	
	서울	-4.8 (-1.5)	1.8 (5.2)	-1.9 (0.5)	-1.7 (-0.3)	4.8 (4.3)	3.5 (-1.3)	2.2 (-1.4)	
	55-59세	5.2 (1.3)	6.6 (5.1)	6.3 (0.6)	1.7 (-1.4)	3.2 (0.9)	4.2 (-0.8)	0.3 (-2.3)	
	60세 이상	-4.7 (-1.4)	-2.2 (5.4)	-1.7 (0.5)	-4.6 (0.8)	6.2 (7.3)	2.9 (-1.6)	3.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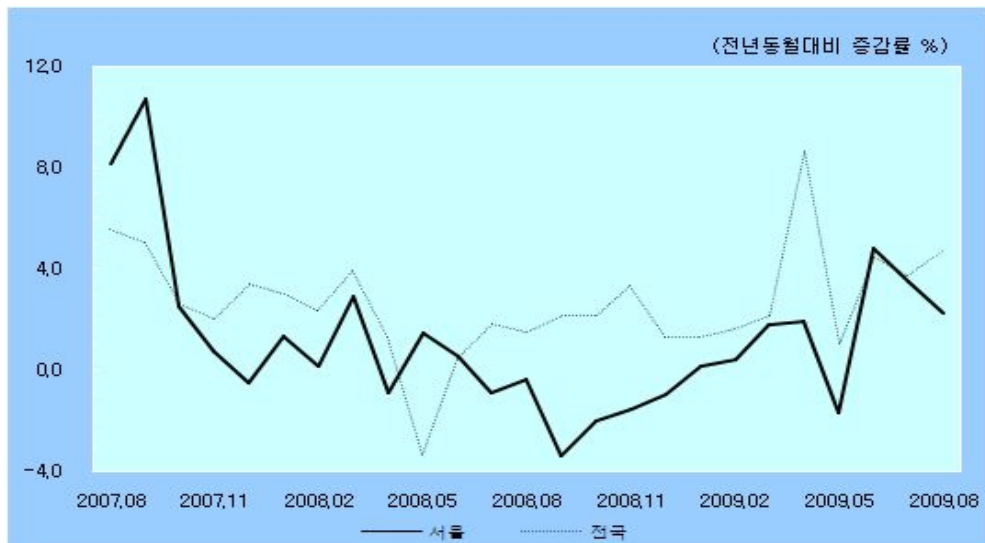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은 증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등은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34.7%), 사무종사자 50천명(6.3%),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2천명(2.3%)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61천명(-11.5%), 서비스·판매종사자 64천명(-4.9%)은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6.8%, -1.5% 각각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01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5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88천명(-6.8%), 임금근로자는 53천명(-1.5%)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70천명(-6.3%), 무급가족종사자는 18천명(-10.1%)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96천명(5.0%)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 33천명(-2.8%), 일용근로자 116천명(-21.0%)이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54시간 이상 취업자 8.7%, 5.1% 각각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4천명(-39.4%)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9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8천명(8.7%)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2천명(-9.1%)이 감소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422천명(-47.9%)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5천명(10.6%)이 증가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도 63천명(5.1%)이 증가
 - 일시휴직자는 1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8.4%)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시간 증가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별	제조업	-10.9 (-6.0)	-12.0 (11.6)	-20.3 (-9.0)	-15.5 (4.5)	-17.2 (-4.8)	-16.4 (-1.2)	-14.3 (-3.6)
	SOC 및 기타서비스업	1.3 (-0.1)	-0.8 (0.4)	0.4 (1.6)	-0.3 (-0.1)	0.8 (1.4)	-0.3 (-0.5)	-1.4 (-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2 (-0.4)	3.8 (-0.5)	5.1 (2.5)	4.7 (0.4)	6.6 (2.9)	6.4 (-0.3)	4.9 (-1.8)
	도소매·음식숙박	3.5 (0.8)	-3.4 (0.4)	-1.6 (0.3)	-2.0 (-0.8)	-1.0 (1.1)	-3.6 (0.0)	-4.3 (0.0)
	전기·운수·통신·금융	0.4 (-0.3)	-2.1 (-0.8)	1.6 (3.3)	-0.2 (0.6)	-1.5 (-0.3)	0.1 (-0.7)	-1.2 (-1.6)
	건설업	0.3 (-1.3)	-9.4 (6.9)	-14.1 (-1.7)	-15.8 (-1.2)	-13.6 (-1.4)	-18.1 (-3.1)	-18.9 (-2.3)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6 (-1.1)	-1.2 (-1.5)	2.0 (2.4)	0.3 (-0.9)	3.0 (2.1)	2.2 (0.5)	2.3 (-1.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0 (-0.3)	-5.6 (6.5)	-11.4 (-3.4)	-9.7 (2.8)	-8.6 (0.1)	-9.6 (-2.2)	-11.5 (-2.3)
	서비스·판매종사자	2.1 (0.6)	-4.6 (0.3)	-1.9 (-0.2)	-1.7 (0.0)	-0.9 (0.8)	-2.6 (-0.4)	-4.9 (-1.7)
	사무종사자	-2.2 (-3.7)	5.0 (1.6)	5.4 (3.2)	5.2 (0.0)	2.4 (-0.9)	3.5 (-0.2)	6.3 (-1.1)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0 (-2.2)	-0.1 (1.9)	-1.5 (0.1)	-2.7 (-0.1)	-1.0 (1.2)	-2.2 (-0.7)	-1.5 (-1.4)
	비임금근로자	-1.1 (3.0)	-8.5 (0.8)	-4.9 (1.0)	-1.1 (2.0)	-2.8 (-0.6)	-2.2 (-0.1)	-6.8 (-1.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8월 서울의 실업률 소폭 감소

■ 전국의 연령계층별 실업률 3.7%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전국의 8월 실업자는 9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1천명(18.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천명(19.1%) 증가하였고, 여자는 2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명(17.3%) 증가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자는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서울의 실업률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전국(3.7%)대비 0.8%p 높음

- 8월 실업자는 2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6.4%)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명(18.5%) 증가, 여자는 72천명으로 10천명(-12.3%)이 감소
-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자는 3.4%로 0.4%p 하락

■ 서울의 고용률 57.5%로 전국의 고용률(58.8%)보다 1.3%p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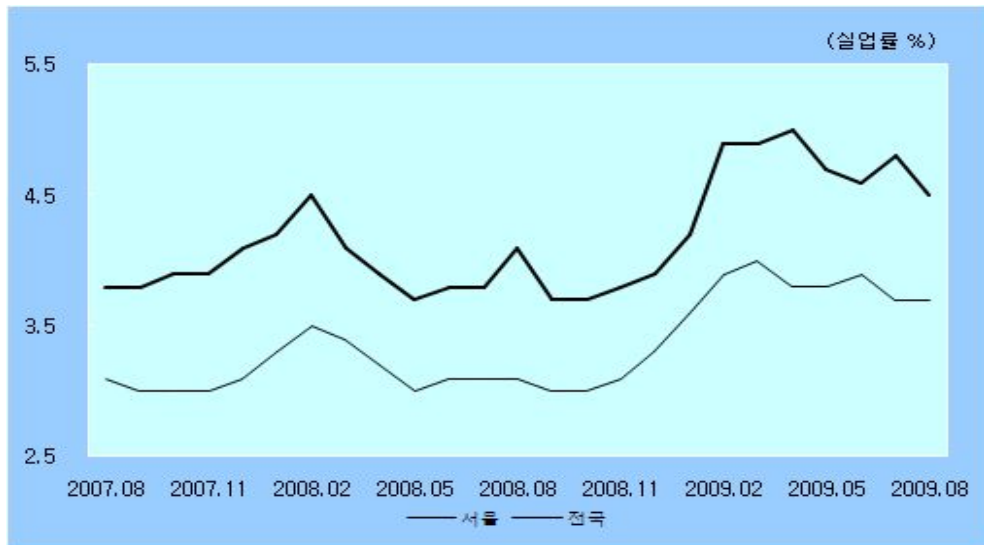
- 전국의 8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성별로 보면 남자는 1.0%p, 여자는 0.6%p 각각 하락하였으며,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8월 고용률은 57.5%로 전년동월대비 2.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0%로 전년동월대비 2.9%p, 여자는 47.5%로 1.5%p 각각 하락
-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8.8%)에 비해 1.3%p 낮은 수준임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업률	전국		3.1	4.0	3.8	3.8	3.9	3.7	3.7
	서울		4.1	4.9	5.0	4.7	4.6	4.8	4.5
	성별	남자	4.3	6.1	5.8	5.2	5.3	5.6	5.2
		여자	3.8	3.4	3.9	4.0	3.6	3.7	3.4
고용률	전국		59.6	57.9	58.8	59.3	59.8	59.4	58.8
	서울		59.6	58.0	58.2	58.4	58.7	58.4	57.5
	성별	남자	70.9	68.2	68.5	69.4	69.6	69.0	68.0
		여자	49.0	48.4	48.4	48.0	48.5	48.3	47.5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9년 7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7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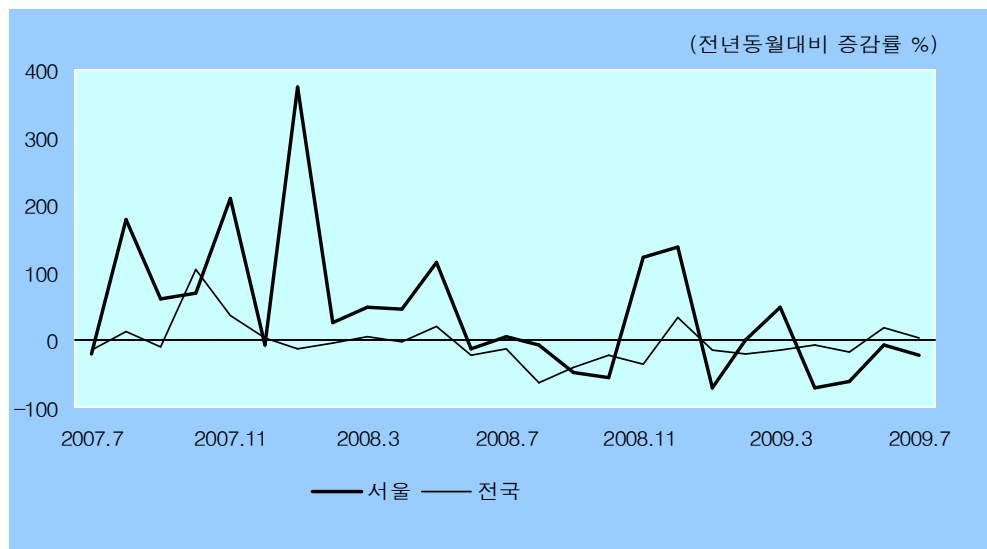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7,40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7%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5조 5,26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3.4%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 전년대비 신규아파트 공사 및 한강공원 공사 등 수주 감소로 82.8% 감소
- 민간부문에서 전년대비 민간 학교 및 연구소 등의 수주 감소로 4.1% 소폭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5,372	7,354	7,249	6,988	11,247	5,527	2.9	-50.9
서울		958	1,716	411	1,024	1,795	740	-22.7	-58.8
발주 자별	공공	231	502	149	147	197	40	-82.8	-79.7
	민간	727	1,183	191	872	1,547	967	-4.1	-37.5
공종 별	건축	830	1,635	243	978	1,665	726	-12.6	-56.4
	토목	123	78	165	46	129	14	-88.4	-89.1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축소

■ 8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0.3% 상승, 주택가격 전년말 수준 회복

- 8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전월대비 상승지역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
- 수도권(0.4%)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광역시(0.2%)와 기타지방(0.2%)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 8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서울의 강남 아파트(0.6%)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재건축규제 시그널, 추가금융규제 우려감으로 전월(1.1%)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강북 아파트(0.4%)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전월대비 축소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7월	8월		
전국		101.0	99.7	100.0	-1.0	0.3
서울		101.7	100.4	100.9	-0.7	0.5
아파트		102.8	100.6	101.1	-1.7	0.5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0.9	99.8	100.3	-0.6	0.5
	강남	102.5	100.9	101.6	-0.9	0.6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강북지역(0.5%)에서는 강북구(1.2%)가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에 따른 상승세가 단독연립 주택으로 확산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진구(0.9%)는 한강변 개발 호재 및 역세권 재건축 예정지 투자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이어감
- 용산구(0.7%)는 한남 뉴타운의 공공 관리자 제도 시범지구 지정에 따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도봉구(0.7%)도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 등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감

■ 강남지역 전월대비 상승 폭 축소

- 강남지역(0.6%)에서는 강동구(1.1%)가 재건축사업 가시화와 지하철 9호선 종점 연장 추진에 따른 호재가 더해져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관악구(1.0%)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소득을 기대하는 투자수요 증가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함
- 송파구(0.9%)는 급매물 소진 및 소형 매물 부족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갔고 서초구(0.8%)는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기존 단지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변 개발에 따른 재건축 기대감 및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로 호조를 보였으나 전월에 비해 상승세는 크게 완화됨

■ 8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8월 28일 기준)은 1,824.26만원으로 전월(1,804.52만원) 대비 큰 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65만원), 서초구(2,753만원), 용산구(2,560만원), 송파구(2,509만원), 양천구(1,980만원), 강동구(1,893만원), 광진구(1,828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9만원), 중랑구(1,121만원), 강북구(1,128만원), 도봉구(1,154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8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강세 지속

■ 8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준비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월대비 0.5% 상승하며 상승세가 확대됨
- 수도권(0.7%)의 전세가격이 강세를 지속하였고 광역시(0.3%)와 기타지방(0.2%)은 전월에 비해 상승세가 확대됨
-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0.1%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각각 0.6%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강세를 보임
- 주택 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이 0.4%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중형과 소형은 각각 0.6%, 0.5%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됨

■ 8월 서울의 전세가격 높은 상승세 지속

- 강북지역(0.7%)에서는 광진구(1.4%)가 물량 품귀현상을 보이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중구(1.1%)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 수요 증가와 인근 지역 재개발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그 외 가을 이사철 물량 부족으로 강북구(1.0%), 종로구(0.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강북지역 전역의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됨
- 강남지역(0.9%)에서는 강서구(2.0%)가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화곡3주구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에 신혼부부 수요까지 가세하며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세가 지속됨
- 송파구(1.1%)는 물량 부족현상 지속에 따라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며 상승세를 지속함
- 주택유형별로 서울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1.0%, 0.4%, 0.8% 상승하며 전 유형에 걸쳐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격이 연중 높은 수준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냈고 연립주택도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강세를 나타냄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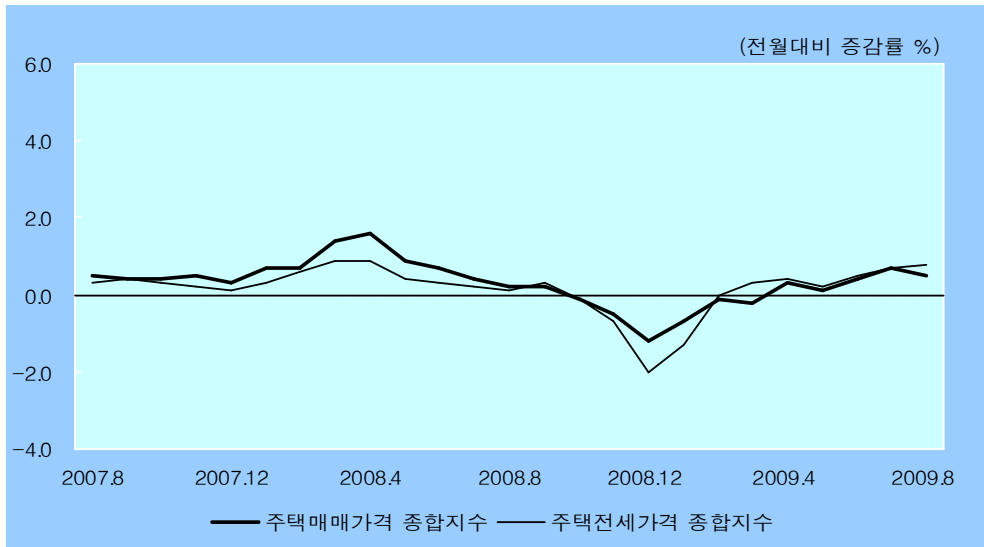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7월	8월		
전국		101.0	99.9	100.4	-0.6	0.5
서울		102.6	100.9	101.7	-0.8	0.8
아파트		103.9	101.8	102.8	-1.1	1.0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1.6	99.9	100.5	-1.0	0.7
	강남	103.7	102.0	102.9	-0.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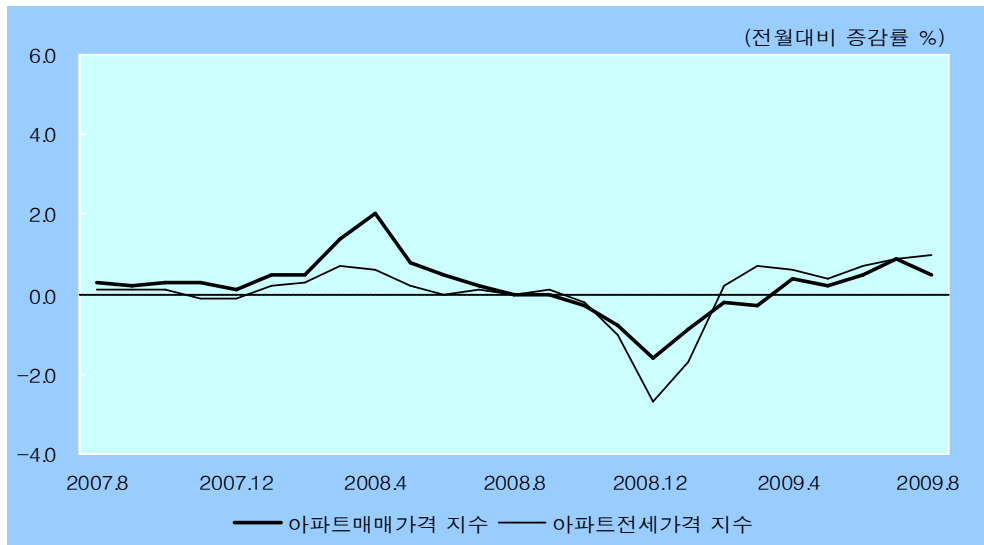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상승

-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9.1%로 전월(38.9%)보다 소폭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4월 38.7% → 5월 38.8% → 6월 38.9% → 7월 38.9%)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8월 전국 평균 52.9%보다 13.8%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9%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8%, 강남 36.9%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9%p이며 지난 달(5.0%p)보다 소폭 하락.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8월 국고채(3년) 금리 상승세

금리

■ 장기시장금리 상승세 지속

- 장기시장금리는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경기회복 기대로 계속 상승하여 연중최고치(4.61%, 8.14일)를 기록한 후 저가매수자금 유입,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월중 상승폭이 크게 축소
- 회사채(3년) 금리는 그간의 큰 폭 상승에 대한 부담, 경기상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크게 하락하여 전월말 수준 하회

■ 단기시장금리 꾸준한 상승세

- 단기시장금리(CDCP 금리 등)는 장기시장금리 상승, MMF 수신 감소세 지속 등으로 월초부터 꾸준히 상승

주가

■ KOSPI 지수 상승세 유지

- 8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국내외 경제지표 호전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확산에 힘입어 상승추세 유지(9.1일에는 연중 최고치 1,623p 기록)
(08년 10.24일 939p → 12월말 1,124p → 09년 7월말 1,57p → 8월말 1,592p → 9.1일 1,623p)

■ 8월중 외국인 순매수 지속

- 8월 중에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는 지속되었으나 그 규모는 전월에 비해 다소 축소
외국인투자자: 5월 4.1조원 → 6월 2.3조원 → 7월 6.0조원 → 8월 4.1조원 → 9.1~8일 -0.2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금 리	국고채(3년)	5.77	3.76	3.83	4.09	4.09	4.42	0.33
	CD(91일물)	5.79	2.42	2.41	2.41	2.41	2.48	0.07
	콜금리(1일)	5.22	1.80	1.91	1.93	1.93	1.98	0.05
	장단기 금리차 ¹⁾	-0.02	1.34	1.42	1.68	1.68	1.94	0.26
주 가	KOSPI	1,537.54	1,322.10	1,400.50	1,395.24	1460.03	1577.91	117.88
	KOSDAQ	507.14	484.22	533.82	516.39	496.39	515.61	19.22
환율 (₩/US\$)		1047.11	1,336.28	1,255.62	1,262.28	1,261.96	1,239.69	-22.27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확대

-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
-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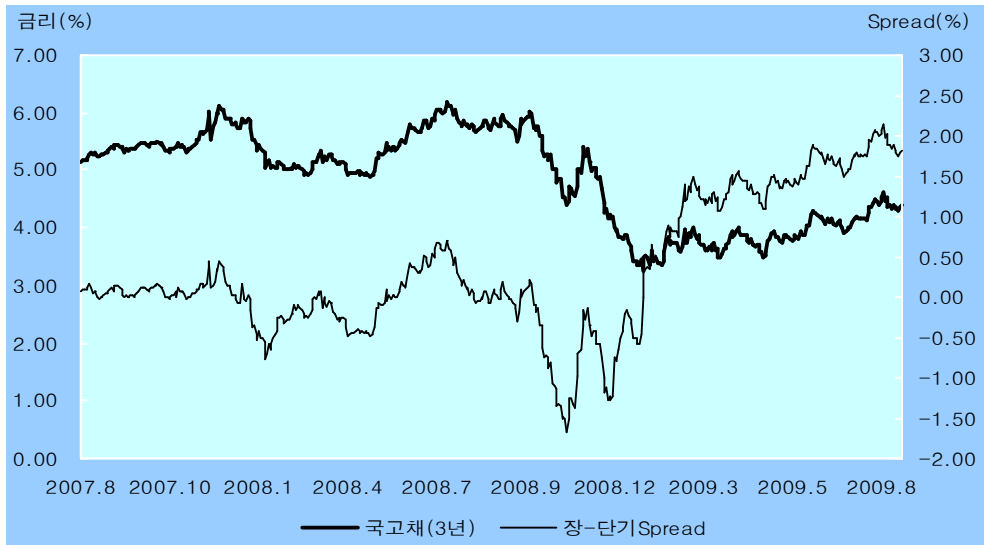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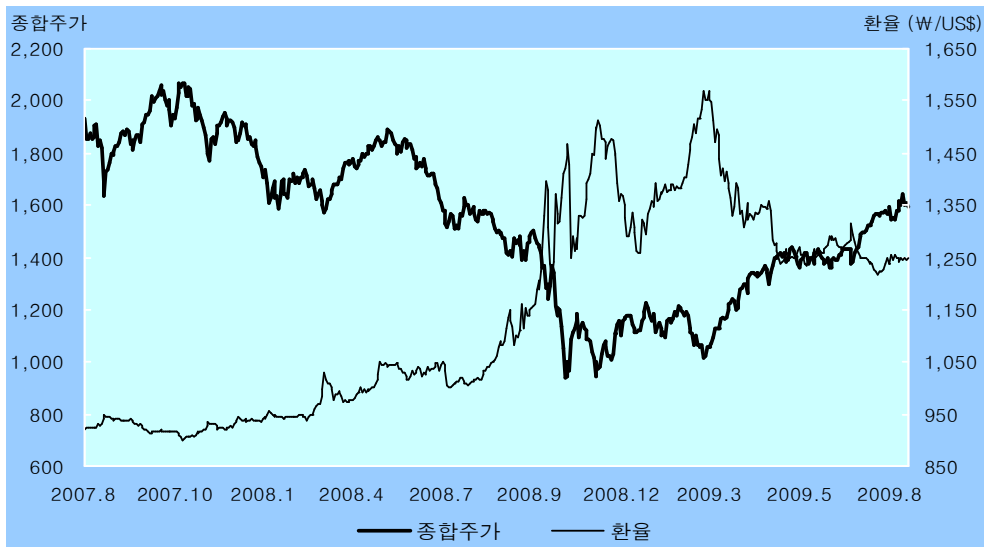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연중	4월	5월	6월	7월	8월	2009년	
								7월	8월
가계대출 ¹⁾		25.0	1.1	2.8	4.0	2.6	3.0	402.2	405.1
주택담보대출 ²⁾		18.1	1.2	2.4	3.5	3.4	2.8	257.8	260.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1	0.5	0.5	-0.7	0.2	144.1	143.3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7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7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39조 5,945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4,615억원 (0.44%) 증가
- 7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5조 9,10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3조 670억원 (0.61%)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전월대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액	증감률	
전국	예금은행	883,185.60	940,529.8	943,796.4	947,207.9	950,708.7	3,500.8	0.37	
	비은행기관	274,472.40	283,248.5	284,582.2	286,925.1	288,885.8	1,960.7	0.68	
	합계	1,157,658.00	1,223,778.3	1,228,378.6	1,234,133.0	1,239,594.5	5,461.5	0.44	
서울	예금은행	385,865.60	416,976.7	417,257.8	416,976.6	419,566.7	2,590.1	0.62	
	비은행기관	84,929.90	84,909.1	85,176.6	85,866.8	86,343.7	476.9	0.56	
	합계	470,795.50	501,885.8	502,434.4	502,843.4	505,910.4	3,067.0	0.61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7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서울의 7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62.2%를 나타내어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하락세에서 상승세 전환(4월 90.2% → 5월 89.9% → 6월 89.2% → 7월 89.8%)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7월	4월	5월	6월	7월	
전 국	89.5	90.2	89.9	89.2	89.8	0.6
서 울	61.4	63.4	62.9	62.2	62.2	0.0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7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상승세 지속

- 7월 신설법인은 5,501개로 전년동월대비 9.9%(495개), 전월비로는 2.0%(108개) 각각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17개 시도별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초로 월간 신설법인이 2개월 연속 5,000개 이상을 기록

■ 서울 전년동월대비 신설법인 증가

- 7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74개로 전월대비 2.2%(45개)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10.0%(18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모든 분야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중 전반적인 상승세 가운데 모든 분야의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6%(24개) 증가, 제조업 91.1%(153개), 건설 및 설비업 0.6%(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5,006	5,038	4,029	5,393	5,501	108	2.0	495	9.9	
서울	1,794	1,866	1,426	2,019	1,974	-45	-2.2	180	10.0	
서비스업	1,466	1,493	1,127	1,546	1,490	-56	-3.6	24	1.6	
제조업	168	248	203	318	321	3	0.9	153	91.1	
건설 및 설비업	157	111	91	151	158	7	4.6	1	0.6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7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29개로 전월(125개)보다 4개 증가하였으나 09.1~6월 평균치(202개)를 크게 하회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7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5개로 전월대비 11.8%(6개) 감소, 전년동월비로는 43.8%(35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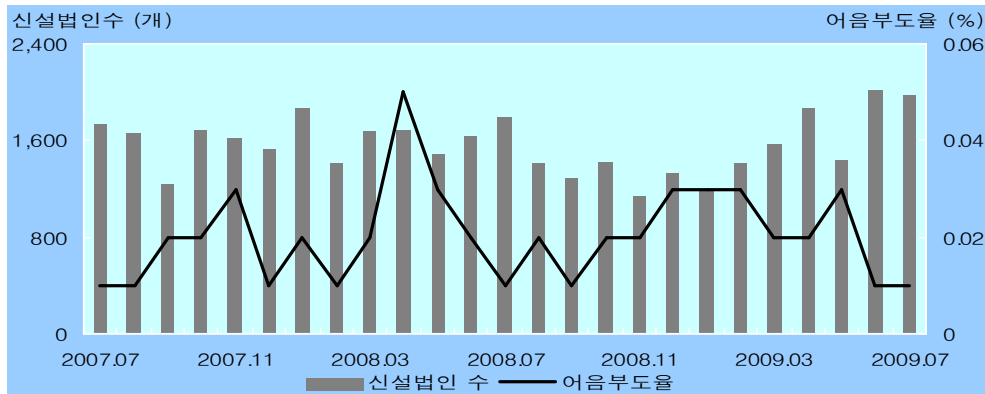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4	0.02	0.02	0	0.0	0.00	0.0	
	부도업체 수	209	219	151	125	129	4	3.2	-80	-38.3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3	0.01	0.01	0	0.0	0.00	0.0	
	부도업체 수	80	84	52	51	45	-6	-11.8	-35	-43.8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금융소외 계층 집중 지원

■ 소액신용보증 집중 지원

- 8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3,036건, 203,478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19.1%, 금액 기준 6.5%의 증가율을 기록함
- 금융부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목표로 시행중인 소액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별보증」 집중처리 캠페인의 결과로 신용보증 건당평균금액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임
- 한편, 전년 동월 시점과 비교시 건수 기준 203.0%, 금액 기준 234.0%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월간 신용보증공급 2,000억원 규모에 복귀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4,303	15,828	10,915	10,894	10,944	13,036	2,092	19.1	8,733	203.0
금액	60,918	281,582	207,449	210,545	190,971	203,478	12,507	6.5	142,560	234.0
건당평균금액	14.2	17.8	19.0	19.3	17.4	15.6	-1.8	-10.3	1.4	9.9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업 비중 대폭 증가

- 8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의 특징은 전월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건수기준 12.3% (28.2% → 40.5%), 금액기준 4.4%(26.9% → 31.3%) 대폭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합계는 전월대비 건수 및 금액기준 각각 10.0%p(54.0% → 44.0%), 4.0%p(54.3% → 50.3%) 비중 감소세를 나타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725	3,917	1,831	5,276	1,287	13,036
비율	5.6	30.0	14.0	40.5	9.9	100
금액	15,616	69,537	32,707	63,594	22,024	203,478
비율	7.7	34.2	16.1	31.3	10.7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대비 소상공인 비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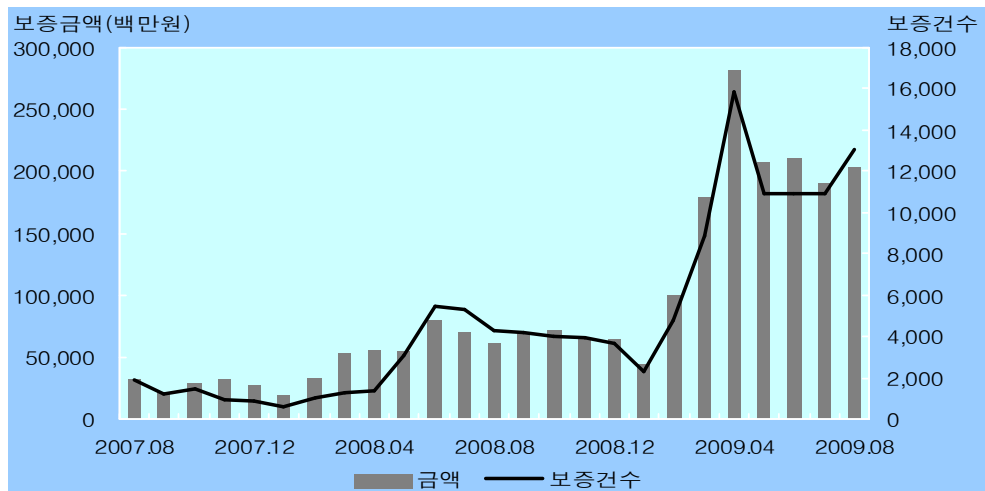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8월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비율이 건수기준 98.1%, 금액기준 94.5%로 집계됨
- 이는 전월대비 건수기준 0.7%p, 금액기준 0.1%p 증가한 수치로, 여전히 소상공인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대상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06	2009.07	2009.08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0,625	10,663	12,787	2,124
	비율	97.5	97.4	98.1	0.7
	금액	199,488	180,217	192,341	12,124
	비율	94.7	94.4	94.5	0.1
소기업	건수	241	242	216	-26
	비율	2.2	2.2	1.7	-0.5
	금액	8,850	8,203	9,541	1,338
	비율	4.2	4.3	4.7	0.4
중기업	건수	28	39	33	-6
	비율	0.3	0.4	0.2	-0.2
	금액	2,205	2,553	1,596	-957
	비율	1.1	1.3	0.8	-0.5
합계	건수	10,894	10,944	13,036	2,092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10,545	190,971	203,478	12,507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전국 수출입 2개월 연속 흑자 폭 감소

- 8월 전국의 수출입 무역수지는 17억달러를 기록, 2개월 연속 흑자 폭 감소
- 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지난달에 이어 흑자폭은 감소, 지난달보다 수출 줄고 소비재·원자재 수입은 증가
- 선박 및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지난달보다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은 보험세를 보인 것이 흑자 폭 감소의 주요 요인

■ 전국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8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0.9% 감소한 289.6억달러, 수입은 32.6% 감소한 272.6억달러를 기록
- 수출은 하계휴가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및 선박수출 스케줄 등으로 지난달보다 9.6% 감소, 수입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지난달 대비 소비재, 원자재 수입 증가 및 자본재 수입 감소세 둔화로 지난달과 비슷함

■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8월 서울의 수출은 27.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하였고, 수입은 64.7억달러로 18.9% 감소
- 전월대비로는 서울의 수출과 수입 각각 9.8%, 1.7% 감소

■ 8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304,422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편직물, 자동차부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683,748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이고, 수입의 경우 플라스틱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6,611	30,418	28,148	32,634	32,023	28,966	-7,645	-20.9	-3,057	-9.5
	수입	40,420	24,630	23,088	25,364	27,617	27,262	-13,158	-32.6	-355	-1.3
서울	수출	2,552	2,609	2,229	2,510	3,098	2,793	241	9.4	-305	-9.8
	수입	7,980	6,282	5,517	6,002	6,581	6,470	-1,510	-18.9	-111	-1.7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8월		2009년 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7,338	145.0	304,422	715.3
2	반도체	190,858	-8.7	175,289	-8.2
3	편직물	172,483	6.1	154,265	-10.6
4	자동차부품	101,978	2.3	153,774	50.8
5	합성수지	106,849	4.3	133,913	25.3
6	고무제품	124,313	16.0	124,383	0.1
7	컴퓨터	105,058	21.7	120,546	14.7
8	무선통신기기	74,987	-10.1	116,697	55.6
9	자동차	57,524	-2.2	85,678	48.9
10	의류	97,692	5.3	82,695	-15.4
합계		2,552,365	9.7	2,792,748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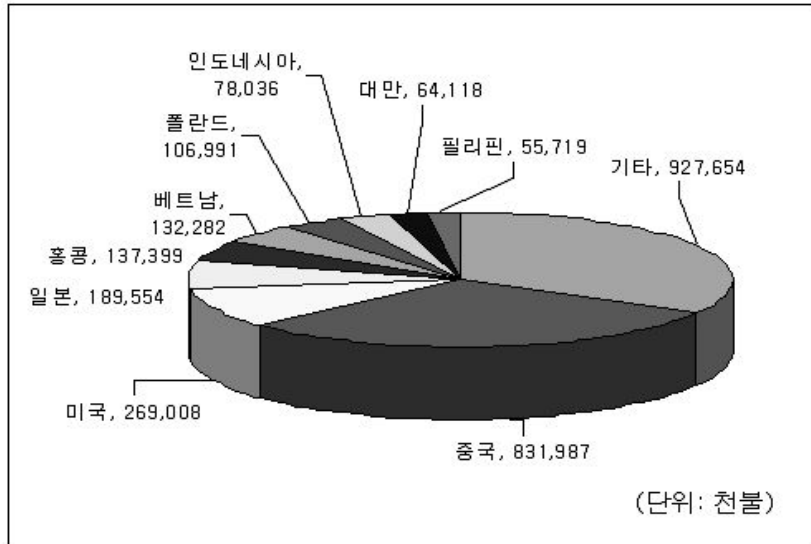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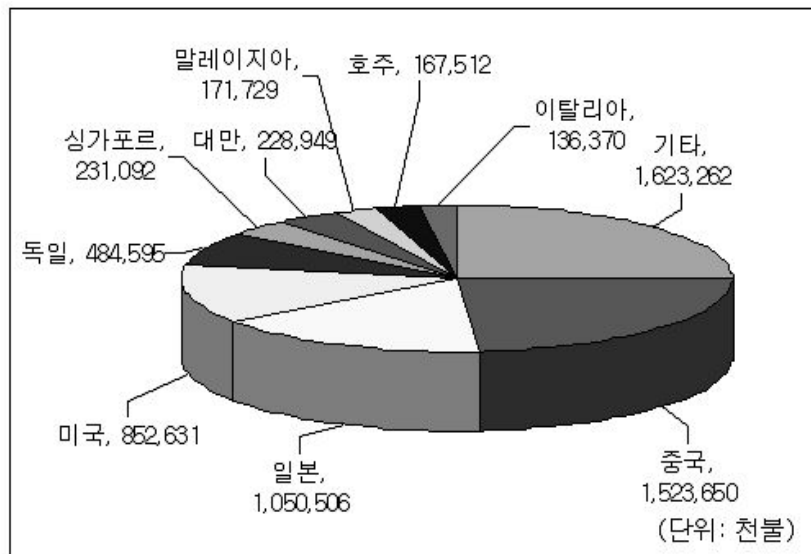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8월		2009년 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80,391	95.2	683,748	-12.4
2	컴퓨터	377,991	-36.0	360,393	-4.7
3	석유제품	434,119	217.9	301,120	-30.6
4	의류	345,681	55.0	270,342	-21.8
5	자동차	293,113	10.1	222,011	-24.3
6	플라스틱제품	81,048	9.2	184,859	128.1
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8,136	233.0	168,268	42.4
8	농약및의약품	122,234	11.0	148,481	21.5
9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72,514	-1.8	117,984	-31.6
10	곡실류	117,882	36.6	109,034	-7.5
합계		7,980,268	33.6	6,470,296	-18.9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